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5년 1월 12일
제목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본문	창세기 28:10-22

녹취

• 서론

먼저 우리 서론으로 우리 교회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겠다. 제2의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을 받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벌써 2주차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먼저 결론나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 잘 못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봤을때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다. 세계복음화가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소원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거기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나는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된다. 지금 분명히 우리 교회는 어려운 상황속에 있다. 다락방 상황 전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속에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고 확인해야 된다.

제가 송구영신예배 말씀을 받고 계속 질문하면서 답으로 받은 말씀이 있다. 그게 사 43:18-19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모든 상

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사 43:19에 보면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에 결론을 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운동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인도를 받아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송구영신예배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의 역사는 51주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개인의 것으로 나의 기도제목으로 확실히 붙잡으셨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살전 2:13 말씀을 찾아보겠다. 이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매년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붙잡으셨다면 말씀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잡으셨다면, 올해 그렇겠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면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힘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본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다. 어려운 상황에 벰엘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왜 이 본문을 선정하게 되었냐면 올해 본부 말씀 첫 번째 주일에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의 말씀이 나왔다. 아브라함의 과정을 보면서 성경을 읽다가 쪽쪽 읽혀나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요셉까지 읽어나갔다. 그때 확인이 되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전달하고 인도하시는구나 확인이 되더라. 그런 과정에 야곱의 새로운 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1. 내가 네게 허락한 것

1) 계획

첫 번째로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 동생이다. 창 25:23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라의 태중에서 형제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된다. 에서는 사냥꾼이었다. 들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 잘하고 남자인 느낌이다. 그런데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기록은 이렇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남자인 이미지는 아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

겠지만 팔죽을 쑜었다. 장막에서 요리도 하고 주방에도 들어가고 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죠. 지금이야 당연히 게 주방에 들어가야 된다. 계신 분들 다 주방에 들어가시지요? 다락방 갔을 때 주방에서 설거지하시는 아버님들 많이 뵈었다. 음식도 하시고. 지금은 당연하다.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고도 했다. 좋지 않은 일이었다.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 남자답지도 못한 인물이다. 나쁘게 보면요. 그리고 팔죽을 쑜었는데 형이 배고프다고 하면 좀 나눠주면 되지, 형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찬스다 하면서 장자권 팔아라. 팔죽 줄게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줄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그야말로 나로 충만했던 인물이었다. 나의 것이 분명했다. 야곱 이름의 뜻을 아시죠?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다. 태어날 때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것은 뒤를 친다, 뒤를 잡는다. 좀 다른 말로는 속이다는 뜻이다.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다, 아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지혜롭다기보다는 이름 뜻대로 속이는 자였다. 나의 것으로 많이 행했다.

여기서도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셨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다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그리고 그 이름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출생부터 이름, 그리고 그 끝까지 야곱의 삶의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다.

2) 문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문제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완전한데 그 속에 문제를 허락하셨다. 지금 야곱을 보면 축복을 따 빼앗아 받았다. 그런데 창 27:41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이삭이 얼마 못 살 거 같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것이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동생을 죽이겠다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그럴겠는가? 밭상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야곱에게 온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타인과의 갈등이 있으면 안 보면 된다. 요즘 애들 말로 손절이다. 안 보면 된다. 차단하고 전화 안 받으면 된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죽음의 위기였다. 다 놓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첫 번째,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 속에 문제도 허락하셨다.

3) 축복

마지막으로는 결국 축복을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이다. 야곱이 쫓겨서 엄마가 죽을 거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는 것이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란을 향해 가는데 해가 저서 유숙하려고 돌 베개를 삼고 누워있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 잃었다. 축복을 받았는데 다 잃었다. 도망쳐야 된다.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아무것도 나에게 남은 것이 없고 외롭고 힘도 없고 낙심하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만나주신 자체로도 축복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히 말씀하신다. 그게 사닥다리다. 야곱이 꿈꾸는데 사닥다리가 섰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다. 이 사닥다리는 무엇인가? 나중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나중에 요 1:51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외롭고 처량하고 낙심해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자격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다. 종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노력해야 된다. 애써서 뭔가를 해서 찾아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신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과 사닥다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다.

그리고 천군천사를 보여주셨다. 사닥다리를 오내리는 주의 천군천사가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주의 천군천사가 함께 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 천군천사에 대한 요절이 많이 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시 91: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너의 모든 길을 지키겠다. 시 103:19-22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리고 20-22 절에는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와 천사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라고 했다. 이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영적인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제일 멍청한 일이다. 나가서 돈 벌어야죠. 아니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죠. 황금 같은 주일에 왜 이 시간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영적인 일이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을 주신다.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그게 13절이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13) 하나님이 그 위에 서계셨다. 하늘 보좌에 서셨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 말씀하신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분명히 야곱에게 밝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조상들은 이제 떠날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떠났다. 그런데 너의 조상은 떠나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한 약속대로 조상에게 한 약속대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다. 그리고 14절에 진짜 축복을 주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14)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단에 썼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은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언약의 축복을 너희로 말미암아 또 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운동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곱을 부르심부터 끝까지 분명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 야곱이 조용하고 장막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예뻐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엄마 품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엄마 품에서 빼내오신 것이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 자녀라고 무조건 꽃길만 걷는 게 아니다.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도 분명하다.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그거 뛰어난 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것이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된다. 어린이 찬양에 많이 고백한다.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요라고 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영화 기생충 보셨는가? 명대사가 있다. 송강호가 아들이 위조해서 과외교사 들어가니까 아들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말한다.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셔야 된다. 지금 있는 상황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이 믿어지는가? 계획이 있군요 나중에 여러분의 입으로 이 고백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15절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15) 한번 더 굳게 약속하신다. 너를 지키겠다. 지금 너에게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가정의 위기가 있지만 너 혼자지만 너를 지키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있는 자리에 찾아온 것처럼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라고 했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네가 갈길 모르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지라. 지금 너는 도망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데 왜 나에게 문제를 주셨는가? 문제도 허락하신 것이다. 응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했는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분명하면 이런저런 말 갖다 붙일 필요 없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 이 주권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 모든 언약 성취 - 확신 (빌1:6)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다. 1번 말씀처럼 계획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속에 문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은 거 언약이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온 언약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게 아니다. 랜덤으로 하나 해줄 게 아니다. 뽑기 잘해라가 아니다. 뭐라고 했는가? 다 이루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그때까지 반드시 부분이 아니라 다 이를 것이고 그때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 입장 다시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약속 잡고 힘을 얻으셔야 된다. 덮어놓고 힘을 얻어라가 아니라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붙잡고 힘을 얻는 것이다. 이 약속은 언제부터 계속되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다. 그리고 지난 청지기 주일 말씀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갔다. 사무엘에게 전달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저는 사실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본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맞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맞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바로 이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면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도망쳐 어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여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빌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고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다. 확신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욕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절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가 뛰어넘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2) 깨달음 -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창 28:16-17)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야곱이 깨달게 된다. 16절이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가? 믿어지는데 흔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흔들리는가?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확인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있는 이

곳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문이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 서원 - 새로운 시작 (창28:19-22)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언약을 받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기둥으로 세운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 분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본인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고백한다.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드리겠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야곱이 아직도 예전 체질을 못 버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분명히 붙잡겠다는 것이다. 평생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분명한 신앙고백이다. 약속 지키실 것을 믿고 해 주시면이 아니라 야곱은 이때부터 분명히 믿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 역시 십 분의 일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떠한가? 도망자다. 그런데 서원을 한 순간부터는 도망자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얼마나 많이 자기 방법을 썼는가? 하지만 벧엘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야곱의 인생과 야

곱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고 전환점이 되었다.

야곱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단을 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에 객으로 가게 된다. 나중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 에서에게 선물하고도 넘칠 만큼. 언약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역시도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결론

결론이다. 라틴어다. ‘Fluctuat nec mergitur’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선교지인 프랑스 파리의 표어다. 파도에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는다. 파리의 표어이자 파리의 모토다. 왜 프랑스 파리의 표어가 이런 모토인가? 프랑스 하면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다. 그런데 프랑스는 아픔과 시련의 역사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파리가 점령당한다. 안타까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본 것은 2015년에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그때 파리 시민들이 이 슬로건을 다시 내걸었다. 파도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다. 테러가 일어나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고 우리는 일상을 지속하겠다. 사람들 이 슬로건을 들고 테러 일어나서 조심해라 자숙해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흔들리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필사적인 노력을 뜻한다. 그래서 이 모토대로 프랑스는 혁명 일으키고 데모하고 파업사고 그래서 비행기도 놓치고 이랬다. 그런 정신으로 싸워 나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슬로건이라고 생각한다.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파도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파도들도 있다. 하지만 그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다. 왜 그런가? 파리 시민처럼 지속하겠다, 노력해서 이겨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 왜 우리가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가라앉지 않는가? 가라앉지 않을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언약할 때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다. 나는 언약 붙잡고 가라앉지 않겠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다. 행 27:22-25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22)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23)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24)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25)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배 떠나는 사람에게 축복한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다. 본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한 고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려울 수 있다. 표류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흔들

리더라도 가라앉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라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산지를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또 확인할 것은 16절이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 다시 말씀드린다. 무작정 하나님 믿어라, 무작정 믿으니깐 괜찮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이겨나가시라는 말이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벨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뛰어넘고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2025년도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은 인생의 모든 언약의 여정을 그 항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강복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